

용인이씨의 내력과 위상

- 전서공 · 참판공파 증심 -

편찬 : 전 대종회 회장 이건상

2023년 10월 28일

용인이씨 전서공 · 참판공파 종회

- 순 서 -

1. 내력(來歷)과 위상(位相)

- 가. 시조(始祖) - 길권(吉卷) 태사공(太師公) 1
- 나. 고려열조제위(高麗列祖諸位) 1
- 다. 중시조(中始祖) - 중인(中仁) 구성부원군(駒城府院君) .. 2
- 라. 전서공(典書公)과 영천공(永川公) 4
- 마. 참판공(參判公) 및 임피공(臨陂公)과 사맹공(司猛公) 5
- 바. 사간공(司諫公)과 헌납공(獻納公)등의 후손(後孫) 7

2. 세계요약(世系要約)

- 가. 용인이씨 세계요약도 11
- 나. 전서공 · 참판공파 세계요약도 11

1. 내력(來歷)과 위상(位相)

가. 시조(始祖) - 길권(吉卷) 태사공(太師公)

우리 용인이문은 태사공 길권님을 시조로 모시고, 고려초에 용인이씨 성관(姓貫)으로 개성(開姓)하여 현재에 이르기까지 1천여년간 정충효우(貞忠孝友)의 맥(脈)이 뉘뉘(綿綿)히 이어져 내려오는 전통적(傳統的)인 명문(名門)의 가문(家門)이다.

시조님께서서는 신라 헌강왕(憲康王) 6년인 서기 880년에 탄생하시어 천성이 강직하고 도량이 활달하셨으며, 학문을 즐겨 특히 천문지리에도 능통하셨다. 시조님께서서는 용인의 토호(土豪)로서 고려 태조 왕건이 후삼국을 통일하는데 큰 공을 세워 구성백(駒城伯) 삼한벽상공신(三韓壁上功臣) 삼중대광(三重大匡) 태사(太師)의 벼슬을 제수(除授)받으셨으며, 사후(死後)에는 안의(安毅)의 시호(諡號)가 내려지고, 그가 살던 용인을 본관으로 삼게 하였다.

묘소는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8번지인 자은교촌(慈恩橋村) 마을 뒷산이었으나 실전(失傳)되어 이곳에 용인이씨 발상지비(發祥址碑)만 세워져 있으며, 대전 뿌리공원내에는 봉황이 창공을 향하여 힘차게 비상(飛翔)하는 형상(形狀)의 용인이씨 유래비(由來碑)가 2015년 10월 9일에 새로 재건립되어 있다.

나. 고려열조제위(高麗列祖諸位)

길권시조님이라 고려조에서는 13열조님이 생을 마감하셨는데, 이 열조님 중 명공거경(名公巨卿)이 많이 배출되어 문중위상이 명문명족(名門名族)으로 크게 발전하였다.

이 13열조님들의 휘(諱)와 시호(諡號)를 열거(列舉)하면 1세(世)이신 길권(吉卷) 안의공(安毅公), 2세 헌정(憲貞) 양간공(襄簡公), 3세 정(靖) 문익공(文翊公), 4세 회(懷) 문정공(文貞公), 5세 효공(孝恭) 안화공(安和公), 6세 현후(鉉候) 정혜공(貞惠公), 7세 광보(光輔) 장강공(莊康公), 8세

진문(晉文) 무숙공(武肅公), 9세 인택(仁澤) 위혜공(威惠公), 10세 당한(唐漢) 문화공(文和公), 11세 유정(惟精) 충신공(忠信公), 12세 석(奭) 문광공(文匡公), 13세 광시(光時) 간숙공(簡肅公)으로, 위 열조님들은 고려조에서 삶과 생을 마감하신 분들로서 고려의 국교가 불교인 점 등으로 현재 고려 왕릉 외에는 고려시대 묘소가 모두 실전됨에 따라 우리 조상님들의 묘(墓)도 전부 실전되어 겸손과 신의로서 전통적인 명문가문을 이어온 후손들이 정성을 모아 용인시 기흥구 흥덕로 30번지 23소재지에 문종의 성전(聖殿)인 추원사(追遠祠)를 신축한 후, 시조님을 비롯한 제 열조님 위패(位牌)를 사당내에 모시고 2001년부터 매년 음력 3월 14일 추원사(追遠祠)의 사당에서 후손들이 추모대제(追慕大祭)를 봉행(奉行)하고 있다.

다. 증시조(中始祖) - 증인(中仁) 구성부원군(駒城府院君)

公은 고려말 충숙왕 2년인 서기 1315년에 부친인 광시(光時) 판서공(判書公)과 덕양군부인(德陽郡夫人) 행주 기씨(幸州 奇氏)의 장남으로 탄생하였으며, 길권 시조님의 13대손으로 휘(諱)는 증인(中仁)이시고 시호(諡號)는 충숙(忠肅)으로 용인이씨의 증시조가 되는 분이시다.

公은 어려서부터 용모가 단정하고 심지(心志)가 확고하시어 그의 호를 진초(秦楚)라 하였다. 公은 일찍이 학문을 닦고 덕을 높여 일대종장(一代宗匠)이 되셨고, 문과에 급제하여 홍복도감판관(弘福都監判官) 등을 거쳐 문하시중(門下侍中) 구성부원군이셨으나, 고려가 망하고 조선조가 개국(開國)하자 자손들에게 3대까지는 조선조에서 벼슬에 나가지 말라는 유훈(遺訓)을 내리시고 석간 조은홀, 정과 등 소위 팔판서(八判書)와 함께 성거산(聖居山)에 들어가시어 자분(自焚)하려 하셨으나, 자손들의 읍간(泣諫)으로 뜻을 이루지 못하시고 두문동(杜門洞)에 입산하시어 고려에 대한 일편단심의 대절(大節)을 지키셨다.

당시 고려의 유신(遺臣)들은 公의 지절(志節)을 기려 “적적한 두문동에 는 외로운 충성만이 해와 별과 같이 빛나고 벼슬을 받지 않고 절개를 지

키니 천추(千秋)에 그 명성(名聲)을 떨치었네” 라는 시(詩)를 지어 읊었다 한다.

공은 그의 장남 전서공과 장손 영천공 등 조자손(祖子孫) 3대가 천고(千古)의 3세불사충절(三世不仕忠節)을 지킴으로서 후세에 백이숙제(伯夷叔齊)와 같은 고결한 충절의 상징이셨고 조선 5백년 왕조의 정충대절(貞忠大節)에 버팀목이 되셨으며 고충절조(高忠節操)로 만인(萬人)의 사표(師表)가 되심으로서 조선 순조 9년부터 의정부 소재 송산사(松山祠)에서는 그 곳 유림들이 공을 비롯한 고려말 6충신의 위패를 모시고 이분들의 충절을 기리는 추모제향을 매년 올려드리고 있으며 서기2007년부터는 파주 탄현 소재 고려대전(高麗大殿)에서 공을 위시한 장남, 장손 등 고려 3대 절신의 위패(位牌)가 봉안(奉安)되어 매년 고려충현공열사 후손들이 추모대제를 올려드리고 있다. 한편, 증시조(中始祖) 충숙공(忠肅公)의 墓가 용인향토유적(龍仁鄉土遺跡) 六十號로 지정된 후 이어서 2022년도초에는 전서공(典書公)과 영천공(永川公) 父子의 墓가 용인향토유적(龍仁鄉土遺跡) 七十二號로 지정되어 당국이 특별관리하고 있다.

공은 슬하에 3형제의 아드님을 두셨는데 그중 장남인 사영(士穎) 전서공이 장손과 함께 삼대불사충절로 후세에 전서공 참판공파가 충절의 가문파가 되었는가 하면 차남인 사위(士渭) 유후공(留後公)은 자손들중 문과 급제자가 용인이씨 전체 급제자 88인중 83%에 상당하는 73인이고 3정승(三政丞) 16판서(十六判書) 등 고관대작이 부지기수로 많이 배출되어 유후공 청백리공파(留後公 清白吏公派)를 명문의 가문파로 호칭하게 됨으로서 공의 장남과 차남의 자손파가 용인이문의 양대산맥을 이루어 용인이씨 제종파를 이끌어 가고 있다. 한편 공께서는 직계 후손들이 용인이씨 전 종친수의 95%이상이고 조선조에서 명문대가(名門大家)였으며 이 분이 용인이씨의 대통을 계승하심으로써 용인이씨 증시조(中始祖)님으로 받들어 모시고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공은 여말(麗末)에 탄생하시어 유교왕조(儒敎王朝)

인 조선조(朝鮮朝)초에 생을 마감하심에 따라 당시 용인의 3대명당(三代名堂)의 하나인 “들호랑이가 산으로 들어가는 형상의 용인시 기흥구 영덕동 산8번지에 묘소(墓所)를 모시고 매년 음력 10월 1일 후손들이 한자리에 모여 시향(時享)을 봉행(奉行)하여 드림으로서 공은 매년 연중 3회에 걸쳐 제사를 봉행 받으시는 우리 문중에 유일무이(唯一無二)한 분이시다.

라. 전서공(典書公)과 영천공(永川公)

(1) 15세 사영(士穎) 전서공(典書公)

휘(諱)가 사영(士穎)이신 전서공(典書公)은 증인(中仁) 증시조님과 천안군부인 전씨(天安郡夫人 全氏)의 장남으로 탄생하셨으며 호(號)는 평은(平隱)으로 전서공 참판공파의 파조(派祖)가 되는 분이시다. 용인이씨 15세이신 공은 명문대가(名門大家)에서 성장하여 지절(志節)이 높고 총명(聰明)이 뛰어나 문과(文科)에 급제(及第)하신 후 청주목사, 안동부사 등을 거쳐 영록대부(榮祿大夫) 형부전서(刑部典書)에 오르셨다.

공(公)이 청주목사 재직시(淸州牧使 在職時) 이색(李穡)의 시(詩)가 실린 묵은집(牧隱集)과 공의 문집(文集)을 보면 청주목 제용재기(淸州牧濟用財記)에 “용인이씨 사영공은 내가 성균관(成均館)에 재직시 생도(生徒)였는데 동렬(同列)들이 그의 탁월한 학식을 칭찬하고 집정대신(執政大臣)이 그의 재능(才能)을 인정하여 참관(參官)으로 천거한 바 청주재임(淸州在任)의 치적(治績)을 보니 맑고 바른 법도(法道)로 그의 학덕(學德)이 높을 것을 알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이에 따라 조선조(朝鮮朝) 정순조시(正純祖時)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은 그가 저술(著述)한 목민심서(牧民心書)에서 공(公)이 청주목사시(淸州牧使時)에 양곡등(糧穀等) 용재(用財)의 절약이식(節約利息)을 취(取)하여 의재(義財)를 만든後 빈민구제시책(貧民救濟施策)인 제용재(濟用財)의 덕정(德政)을 베풀어 목민관상(牧民官像)의 귀감(龜鑑)이 되었다고 공을 극찬(極讚)하였다.

공은 부친의 고절(高節)의 뜻을 받들어 신왕조(新王朝)에 반대하시다가 포은(圃隱) 피해서 목은(牧隱)등 과 연루(連累)되어 전북(全北) 남원(南原)으로 유배(流配)되신 후 그곳 적소(謫所)에서 조선조 태조(太祖) 5년인 1396년 4월 7일에 생을 마치셨다.

(2) 16세 백찬(伯撰) 영천공(永川公)

휘(諱)가 백찬(伯撰)이신 영천군사공(永川郡事公)은 구성부원군(駒城府院君)의 사손(嗣孫)으로서 전서공(典書公)과 단양군부인우씨(丹陽郡夫人禹氏)의 독자(獨子)로 고려공민왕 8년인 서기 1359년에 탄생하셨으며 약관(弱冠)에 벼슬이 대증대부(大中大夫) 지영천군사(知永川郡事)이셨다.

공이 김제(金堤) 현령(縣令)이 되셨을 때 양촌(陽村) 권근(權近)의 찬시(讚詩)에 “성상(聖上)이 애민(愛民)하는 마음 간절하여 사려(思慮)깊고 사리(事理)밝은 선비를 택(擇)한 끝에 그대가 발탁되어 고을을 얻었네. 그대 부친도 목민관(牧民官)이신데 덕(德)으로 선정(善政)을 베푸니 다스리는 고을이 밝기만 하네. 옛 명성(名聲)이 아직도 한결 같은 그대에게 찬사(讚辭)를 보내노니 으뜸치정(治政)으로 계속 명성을 떨치기 바라네” 라고 하였다 한다.

공은 조선신왕조(新王朝)가 등극(登極)하자 조부님과 부친의 높은 지절을 받들어 벼슬을 버리시고 고독한 절조의 길을 걸으시다가 조선조 태종(太宗) 15년인 서기 1415년에 57세를 일기로 생을 마감하셨다.

공께서는 슬하에 1남 4녀를 두셨는데 아드님은 승충(升忠) 참판공(參判公)이시고 맏따님은 한양조씨(漢陽趙氏)인 육(育)에게 출가(出家)하시어 이 따님의 증손자(曾孫子)가 조선조 중종(中宗)때에 저 유명한 정암(靜菴) 조광조(趙光祖) 선생으로 공의 외현손(外玄孫)이 되신다.

마. 참판공(參判公) 및 임피공(臨陂公)과 사맹공(司猛公)

(1) 17세 승충(升忠) 참판공(參判公)

휘(諱)가 승충(升忠)이신 참판공(叅判公)은 호(號)가 은재(隱齋)로서 부친이신 영천공(永川公)과 하음군부인 봉씨(河陰郡夫人奉氏)의 2대독자(二代獨子)로서 조선태조(朝鮮太祖) 7년인 서기 1398년에 탄생하셨다. 공은 검교벼슬을 거쳐 당시의 연로우대정책(年老優待政策)에 따라 자헌대부(資憲大夫) 공조참판(工曹叅判)에 오르셨으며 84세를 일기로 조선조 성종(成宗) 12년인 서기 1481년에 하세하셨다.

공은 슬하에 6형제를 두셨는데 장남인 봉손(奉孫) 임피공(臨陂公)과 3남인 말손(末孫) 사맹공(司猛公)의 후손들만이 대(代)를 이어오고 있다. 공은 전서공 참판공파(典書公叅判公派)의 파조(派祖)가 되는 분이시다.

(2) 18세 봉손(奉孫) 임피현령공(臨陂縣令公)

휘(諱)가 봉손(奉孫)이신 임피현령공(臨陂縣令公)은 자(字)가 상현(象賢)이고 호(號)는 평정당(平亭堂)으로서 부친인 참판공(叅判公)과 정부인 전주최씨(貞夫人全州崔氏)의 장남으로 조선조 세종(世宗) 17년인 서기 1435년에 탄생하시어 벼슬이 통훈대부(通訓大夫) 임피현령(臨陂縣令)이셨으며 조선조 중종(朝鮮朝中宗) 8년인 서기 1513년에 79세로 생을 마치셨다.

공은 슬하에 9형제의 아드님을 두셨는데 그 중 장남인 효篤(孝篤) 사간공(司諫公)과 차남인 효敦(孝敦) 헌납공(獻納公) 그리고 삼남 효중(孝重) 별제공(別提公)등 3형제의 자손들이 현재와 같이 번창한 가문으로 발전하였다.

(3) 18세 말손(末孫) 사맹공(司猛公)과 후손(後孫)

휘(諱)가 말손(末孫)이신 사맹공(司猛公)은 내금위(內禁衛)의 사맹(司猛)을 거치셨다. 전서공 참판공파의 3대종파(三代宗派)중 하나의 종파인 사맹공파는 후손들의 번창도는 낮은 편이지만 재정자립도가 가장 높고 종친수에 비하여 저명(著名)한 인물이 많이 배출되는 가문이기도 하다.

사맹공파(司猛公派)는 27세에 이르러 세검(世儉) 덕이공파(德而公派)와 세발(世跋) 증문공파(仲聞公派) 그리고 세훈(世薰) 사훈공파(士薰公派) 넷째파인 세필(世弼) 사원공파(士遠公派)로 분류되어 각 종파가 수범적으로 발전되어가고 있다.

특히 덕이공파(德而公派)의 파조(派祖)이신 세검공(世儉公)은 효성이 지극하여 지방 수령이 벼슬을 추천하였고 조선조 순조왕이 효행상(孝行賞)으로 잔치음식을 하사(下賜)함에 따라 용인현령(龍仁縣令)이 효행찬양시(孝行讚揚詩)를 지어 덕이공에 보내는 등으로 덕이공께서는 후손들에게 수범적으로 효도를 선행(先行)하였다 한다.

바. 사간공(司諫公)과 헌납공(獻納公) 등의 후손(後孫)

(1) 19세 효篤(孝篤) 사간공(司諫公)과 그 후손

휘(諱)가 효篤(孝篤)이신 사간공(司諫公)은 자(字)가 순경(舜卿)으로서 부친이신 임피공(臨陂公)과 숙인 남양홍씨(淑人南陽洪氏)의 장남으로서 기 1451년에 태어나서 1474년 사마시(司馬試)에 합격하였고 1483년 문과(文科)에 급제하시어 사간원(司諫院) 사간(司諫)을 거쳐 정3품인 군자감정(軍資監正)에 오르신 후 서기 1500년 50세로 하세(下世)하셨다.

公은 대종손이시고 사간공파의 파조로서 조부모님에 대한 극진한 효도와 형제간에 돈독한 우애 등을 가범(家範)으로 솔선(率先) 실행하시어 그 자손들의 충효가 이어졌는데 특히 공의 증손이신 정민(貞敏) 옥계공(玉溪公) 부자(父子)가 각각 역적의 난을 평정하여 청난원종공신(淸難原從功臣) 등으로 나라에 충성(忠誠)을 다하였고 공의 작은 증손이신 덕민(德敏) 송파공(松坡公)은 모친이 별세하시자 충남 아산에서 용인 부모님 묘역(墓域)에 여막(廬幕)을 짓고 6년간의 시묘(侍墓)살이로 그의 딸이 백발에 수척해진 아버지를 알아보지 못했다는 일화(逸話)는 지극(至極)한 효행(孝行)의 극치(極致)였다 할 것이다.

公은 슬하에 용인이씨 20세 아드님 3형제를 두시니 장남이신 쌍매당공

(雙梅堂公)은 휘(諱)가 원간(元幹)이시고 자(字)는 간지(幹之)이시며 호는 쌍매당으로 서기 1473년에 태어나시어 생원(生員)을 거쳐 1504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셨고 벼슬은 의정부 사인(議政府 舍人)을 거쳐 일시 노모 봉양(老母奉養)등을 위하여 외직(外職)인 목천현감(木川縣監) 청주, 진주 목사(淸州, 晉州牧使)를 지내셨으며 군기시정(軍器寺正)으로 사헌부 집의(司憲府 執義)를 겸직하시다가 1526년 54세에 생을 마치셨다. 쌍매당공은 용인이씨의 대종손으로 쌍매당공파(용인 신봉동 참의공파와 청양 장계리 파)의 파조이시다. 공의 차남이신 형간(亨幹) 감찰공(監察公)은 울산에 터를 잡으심으로서 울산파의 파조가 되신다.

한편 공의 3남이신 쌍괴당공(雙槐堂公)은 휘(諱)가 홍간(弘幹)이고 자(字)는 대립(大立)이며 호(號)는 쌍괴당(雙槐堂)으로서 서기 1486년에 태어나시어 진사(進士)를 거쳐 1513년에 문과(文科)에 급제하신 후 절충상호군 겸 사복장(折衝上護軍兼司僕將)에 오르신 후 1546년 61세에 생을 마감하셨다. 쌍괴당공은 조정암(趙靜菴), 김충암(金沖菴) 정송강(鄭松江), 박눌제(朴訥齊) 등과 폭넓게 교제한 사실이 현록(賢錄)에 기재가 되는 등 저명인사와 폭넓은 인간관계를 가졌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쌍괴당공은 한림원(翰林院)을 비롯하여 사헌부(司憲府), 사간원(司諫院), 홍문관(弘文館)을 거쳐 목사(牧使)를 세 번이나 지내고 통정대부(通政大夫)를 거쳐 사신(使臣)으로 중국(中國)에 다녀왔으며 기묘명현(己卯名賢)으로 뽑혀 특별히 이조참판(吏曹參判)에 증직(贈職)되었던 분으로서 온양(아산 탕정 매곡리) 파조(派祖)가 되신다. 쌍괴당공은 슬하에 2남 4녀를 두셨는데 장남 영성(永成)공은 문과(文科)에 급제하여 사간원(司諫院) 정언(正言)에 오르셨으며 차남인 향성(享成)공은 백부(伯父)이신 쌍매당공에게 출위(出爲)하여 용인이씨 대종손으로 대통(大統)을 이었고 장녀는 광주김씨인 표(彪)에게 출가(出家)하였고 그 외손녀(外孫女)가 연안이씨(延安李氏)에 출가하여 낳은 아들이 장성하여 좌의정(左議政)이 된 월사(月沙) 이정구(李廷龜)로서 쌍괴당공의 외증손(外曾孫)이 된다.

이에 따라 사간공파에서는 3세불사충절이후 최초로 문과급제하신 네 분
존조(尊祖)님과 수범적 충효우(忠孝友)의 현조(顯祖)님이 많이 배출되시어
대종손파 가문의 위상에 맞는 발전을 이룩하였고 이와 같은 현조님들의
맥이 현재에도 계승 발전되고 있음은 더 나아가 전서공 참판공파 가문의
자랑이라 할 것이다.

(2) 19세 효돈(孝敦) 헌납공(獻納公)과 그 후손

휘(諱)가 효돈(孝敦)이시고 자(字)는 사후(士厚)이며 호(號)는 향괴당(香
槐堂)이신 헌납공(獻納公)은 부친이신 임피공(臨陂公)과 숙인 남양홍씨(淑
人南陽洪氏)의 차남으로 1453년에 태어나서 생원(生員)을 거쳐 1498년
문과(文科)에 급제하신 후 통정대부 사간원(司諫院) 헌납(獻納)에 오르셨
으며 학문을 즐겨 조정암(趙靜菴)과 교류하시다가 1516년 11월에 64세로
생을 마감하셨다.

공은 연안이씨(延安李氏)의 거두(巨頭)이고 석학(碩學)이신 이석형(李石
亨)의 손녀이시며 문과급제하신 혼(渾) 장령(掌令)공의 따님이신 숙부인
연안이씨(淑夫人延安李氏)와의 사이에 7형제의 아드님을 두셨으나 4남이
신 공간 사용공(公幹司勇公)외에는 모두 절손(絶孫)되었다.

따라서 용인이씨 20세이신 공간 사용공(公幹 司勇公)께서는 슬하에 3형
제를 두시어 이분들이 용인이씨 21세로서 장남 진경(眞卿) 참의공(叅議
公)은 서기 1520년에 태어나시어 선원전 참봉(璿源殿叅奉)을 거쳐 공조참
의(工曹叅議)의 증직(贈職)을 받으셨으며 퇴직(退職)후에는 평택 만호리
(平澤晩湖里)로 낙향(落鄉)하시어 이곳에 터를 잡으신 후 1586년에 67세
로 생을 마감하셨다.

참의공(叅議公)께서는 참의공 평택파(叅議公平澤派)의 파조로서 그의
손자대에 이르러 응양 상호군파(應亮上護軍派)와 응유 복정공파(應柳僕正
公派)로 분류 번성하여 현재 참의공 평택파의 종친수는 2천명을 상회하여
종회번창도 면에서는 우리 용인이씨 지종파(支宗派)중에서 가장 높은 가

문으로 발전되어 가고 있다.

다음 공간공(公幹公)의 차남이신 언경공(彦卿公)은 자(字)가 군미(君美)로서 서기 1539년에 태어나셨으며 강화 불은면에서 터를 잡으신 후 1589년 51세로 생을 마감하셨다.

따라서 우리 문중에서는 이 파(派)를 강화파(江華派)로 호칭하고 있으며 현재는 이 강화파의 종친들이 강화지역을 떠나 서울, 인천 등지에서 거주하는 것이 현실이다.

한편 공간 사용공(公幹 司勇公)의 3남이신 춘경 사과공(春卿 司果公)은 자(字)가 증원(仲元)으로서 서기 1542년에 태어나시어 어모장군 행 충무위부사과(禦侮將軍 行 忠武衛副司果)이셨으며 1598년 57세로 돌아가셨는데 사과공은 이후 사과공 정평파(司果公 亭坪派)의 파조(派祖)가 되시는 분이시다.

사과공(司果公)은 3형제중 유일하게 고향을 지키시며 부모님께 효도하는 등으로 그의 증손(曾孫)인 24세 세형 통덕랑공(世馨 通德郎公)이 그 효행(孝行)을 이어 받아 부친인 축(塚) 동지중추부사공(同知中樞府事公)께서 하세(下世)하시자 세형공(世馨公)은 깊은 산중 묘역(山中墓域)에서 3년간의 어려운 시묘(侍墓)생활을 마치고 하산(下山)하셨는데 그 내려온 길을 세인(世人)들은 하마가(下馬街)라 하였다 한다.

사과공(司果公)은 그 현손(玄孫)에 이르러 태제파(泰齊派), 화제파(華齊派) 그리고 대제파(台齊派)로 분류되는 등 종친들의 번창(蕃昌)과 함께 종회(宗會)가 수범적으로 발전되고 있다.

그러므로 헌납공파(獻納公派)는 전서공 참판공파의 4개종파 중에서 종친 번성도(蕃盛度)가 가장 높고 종친수 비율에 걸맞게 현달한 인물도 지속적으로 배출되는 가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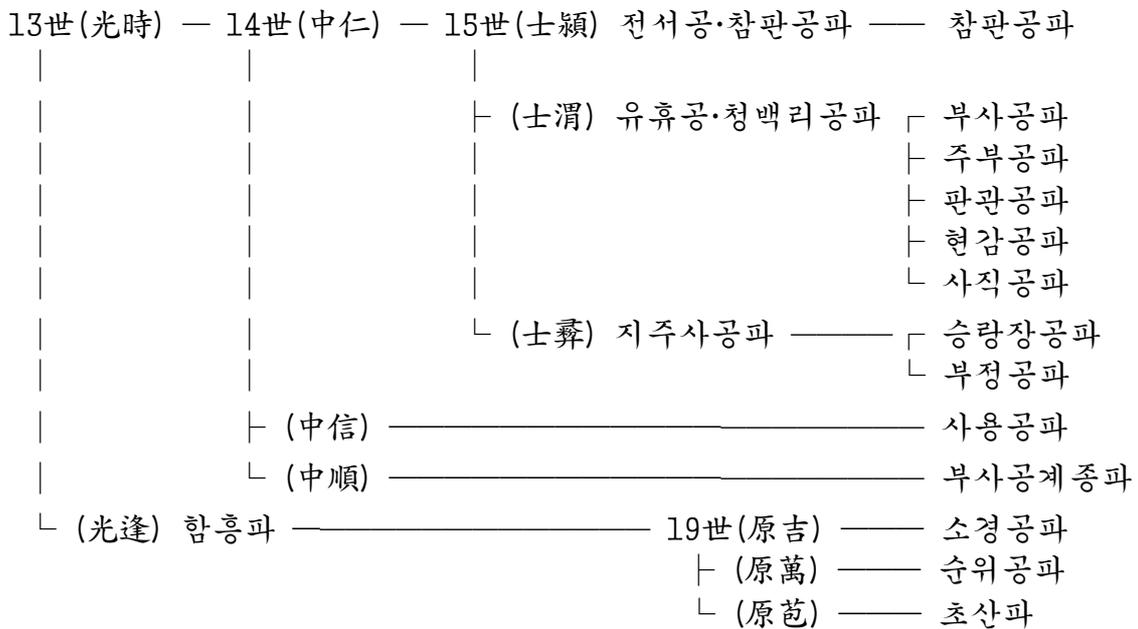
(3) 19세 효증(孝重) 별제공(別提公)과 그 후손

임피공(臨陂公)의 3남으로서 상의원(尙衣院) 별제 벼슬을 지내셨으며

후손들의 번창도는 낮으나 그 후손들이 지속적으로 대를 이어오고 있고 현찰한 인물들이 끊이지 않고 배출되고 있음은 선조님들의 음덕(蔭德)이라 할 것이다.

2. 세계도(世系圖)

가. 용인이씨 세계요약도



나. 전서공·참판공파 세계요약도

